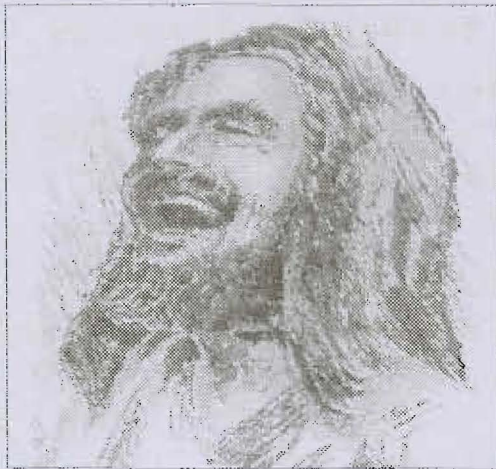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4주일(성 요셉성월)
제32권 17호(나해) 2012-3-18

[묵상]



웃으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나를 무서운 심판자로 여긴다.
울법을 어겨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니
벌 받지 않게 울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뜯어고치자.
나는 심판관이 아니라 구세주이다.
외아들을 보내어 제대로 알게 하자.
무서운 심판자의 가장 반대편의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건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사랑했기에 이렇게 함을 알게 하자.

울법은 지키지만 악을 저지르는 자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르는 이고
벌을 피해 울법을 지키는데 얽매이지 않고
진리의 삶을 통해 빛으로 나아가는 자는
나의 제대로 된 모습을 아는 이다.

나의 참 모습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나라에서 나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는
나에게 의지하고 나의 뜻에 맞게 사는 이
이것이 내가 주는 참된 구원이고
내가 원하는 참된 신앙생활이다. -框-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저녁미사(사순시기)	오후 7: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재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매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바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미사지향

토 요	(연) 권순봉 요안나, 성세균 요셉
특전미사	(생) 정케빈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 김순탁 안나, 양건배 비오 & 황옥분, 신태동 요아킴, 이상일 요셉, 박영춘 안토니오, 고준희 제임스, 최건 바실리오, 권순봉 요안나, 이현호 요한, 박동욱 요셉, 홍관 요셉
	(생)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민원희 안나, 이순자 비비안나, 박세준 요셉 & 박소영 프란체스카, 이종민 요셉, 이형삼 요셉 & 이해숙 요세피나,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최제인 파스트로나 가정, 김인태 데이몬드, 전안나 & 전복래 테레사 가정, 토런스 동2반 가정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역대기 하권(2 Chronicles) 36,14-16,19-23

화답송 ○내가 만일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만일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올려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가락 불러 보아라.”○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 버리리라.○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2,4-10

복 음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환호송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 음 요한(John) 3,14-21

영성체송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나이다.
지파들이, 주님의 지파들이 그리로 올라가나이다.
주님, 당신이름 찬양하러 올라가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임당	153	194	149
봉헌	269	269	259
성체	279	289	307
파견	155	155	10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

하느님 말씀과 신앙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역사 안에, 당신 몸인 교회 안
에 현존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행위는 개인적이면서 동
시에 교회적인 것입니다.

죄,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26). 또한 하느님의 말씀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하느님과의 계약의 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가능성이
인간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는 것도 계시해 줍니다. 실상 하
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죄도 드러내 보
여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매우 자주 죄가 말씀을 듣
지 않는 것으로, 계약의 파기로, 다시 말하면 당신과 친교를 이
루도록 부르는 하느님께 자신을 달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인간의 죄가 본질적으로 불순종
이고 “듣지 않음”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철저한 수명은(필리 2,8 참조) 이 죄
를 남김 없이 드러냅니다.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느님과 인
간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며 우리에게 화해의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와 온 세상의 죄
를 위한 희생 제물로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구속의 가능성이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들이 죄의 뿌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임을 알고,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에게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 “하느님 말씀의 어머니”이며 “믿음의 어머니”

27).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은 제12차 총회의 목표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
고 천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느님 말씀과 믿음 사이
의 상호 관계가 완전하게 실현된 자리를, 곧 “계약의 말씀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예’로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소명을 완
전하게 실현하신” 동정 마리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창조된 인간은 바로 순종하시는 마리아의 믿음 안에서
그 가장 완전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주님의 탄
생 예고 때부터 성령 강림 때까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열려
있는 여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계속>

죄와 선행

명동거리 한복판에는 '불신지옥'이라는 시뵐 건 글씨의 피켓이 서 있습니다. 일종의 협박입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불가마 찜질방에 들어가서도 "시원하다. 시원하다." 한다고 하느님께서 지옥운영을 포기하셨다는 소문도 있는데 말입니다. 옛날 영화 하나가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호기심에 찜질을 찾아가 손금을 보는데 점쟁이가 놀라면서 "당신은 살인할 손금을 가졌소."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인지라 손금을 본 후 무척 괴로워하며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다름 끝에 그 점쟁이를 죽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죄만 자꾸 말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있으면 오히려 죄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불행한 일을 계속 걱정하고 있으면 그 걱정되는 현실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선(善)을 희망하고, 선행을 하고, 긍정적으로 용서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산다면 이미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천국처럼 살다가 마지막 날 천국을 희망하며 평화롭게 죽는다면 숨이 멎는 순간의 그 평화가 사진처럼 찍혀져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닐까요? 반대로 늘 남을 부정적으로 단죄하고, 악행과 어둠 속에서 오늘을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을 희망하지 못하며 절망 속에 죽는다면 숨이 멎는 순간의 그 절망이 사진처럼 찍혀져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닐까요? 지옥은 절망하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불행이며, 천국은 희망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하느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삶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행을 합니다. 악행을 한 사람은

악행이 드러나지 않게 어둠 속에 머물립니다. 악행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래서 어두운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비롭지 않으니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분노에 더디시고 벌을 하시다가도 쉽게 마음을 돌리시는 분(요나 4,2)입니다. 자비가 풍성한 하느님,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창조된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할 때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신앙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선행을 많이 하려고 택했습니다. 혹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후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선행을 더 많이 하면 됩니다. 신앙을 권하면 보통, 죄가 많아서 나중에 믿겠다고들 합니다. 아닙니다. 죄가 많으니 빨리 신앙을 가져서 선행을 많이 하여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작품인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 작품인데 미워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귀한 당신 작품들인데 십사만 사천 명만 구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선행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엄마가 아플 때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곁에서 바라보는 저도 아팠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엄마도 아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전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홀로 얼마나 외로웠을까. ◆글 : 이영 아녜스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이민상 요한	유철희 마로로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박희자 마리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올리아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 사순 제4주일 금요일(3월23일) : 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5주일 금요일(3월30일) : P.V. 구역
-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준비되어있습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공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5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부활 합동 판공성사 : 3월27일(화)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사순시기 중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어르신들께선 미사전후 고해성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동보속 : ㉠요한묵시록 통독 ㉡선행1회 ㉢주모경기도 등 세보속 중 두가지 선택
- ◆ 본당신부님 출장 판공성사 중 평일미사 시간 변경
 - 3월22일(목) 저녁미사 → 아침미사(8시30분)
 - 3월28일(수) 저녁미사 → 아침미사(8시30분)
 - 3월29일(목) 저녁미사 → 아침미사(8시30분)
- ◆ 예비자 받아드리는 예식
 - 일시 : 3월21일(수) 저녁미사 중<미사후 강당에서 예비자와 대부모님을 위한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 세례식 예정 : 5월27일 성령강림대축일
 - 문의 : 복음화분과장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960
- ◆ 율트레아 3월 정기모임
 - 일시 : 3월22일(목) 오후 7시(아침미사로 임시변경)
 - 장소 : 강당
 - 올해부터 월레모임이 매달 4째주 목요일(저녁미사후)로 바뀌었습니다.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 오늘 주일(25일) 오후 2시
 - 장소 : 성전
 - 대상 : 아치에스 행사는 레지오단원들이 모후이신 성모님께 대한 충성을 새로이 다짐하고, 악의 세력과 싸울 힘과 용기를 얻고, 축복을 받기 위한 장엄한 예절입니다. 각단원은 물론 협조단원들도 필히 참석해주시시오.(점심제공)
 - 문의 : 꾸리아 단장 최기남 야교보 ☎(310)569-3940
- ◆ 본당 M.E. 셰어링(Sharing)
 - 일시 : 오늘 주일(25일) 오후 6시, 강당
 - 문의 :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율리아 대표부부 ☎(310)780-9055
- ◆ 백삼위 탁구 동호회 회원모집
 - 대상 : 본당 교우 남녀노소
 - 연습 및 강습 : 매주 토 오후 3시~6시30분, 주일 오후 3시~7시 강당 및 유아실
 - 회비 : \$60(2012년 3월~2013년 6월)
 - 거울 기증(전신용 또는 반신용)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 LA대교구 등 남가주 8개지역 교구 종교교육 컨퍼런스
 - 일시 : 3월23일(금)~25일(주일)
 - 장소 : 애나하임 컨벤션센터(호세 고메스 LA대주교 집전 파견미사)
 - 대상 : 가톨릭교회 각본당 청소년 교육담당자
 - 백삼위본당에서 주일학교 교리교사 7명이 참석합니다. (김낙기 바오로, 황선홍 그레고리오, 미아를 서, 조나탄 고, 린다정, 오보나, 이루시아)
 - 은총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인석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18일(주일) : P.V.2반 (육개장 \$3) 주일학교 11,12학년 (스파게티)
 - 3월25일(주일) : 토런스 서 3반 (비빔밥 : \$3) 주일학교 (피자)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김관기 김원호 김충섭 안종연 유희연 이용무 정혜영 최현찬	강태홍 김광자 김윤진 노혜숙 양영관 윤석구 이일길 조소영 한경희	구자운 김교복 김일신 문충한 엄영희 윤희동 임 순 주대중 황지영	권오상 김병철 김정웅 민순선 엄혜은 이미경 전지웅 지경수	권진열 김상규 김종훈 박영룡 원건희 이민상 정규숙 최상만	권태만 김원모 김찬구 변혜경 유철희 이우성 정혜룡 최의수
합계 : \$5,580						
미사헌금 : \$2,758						

성전헌금	강태홍 김광자 김충섭 안종연 윤희동 정혜룡 최현찬	구자운 김교복 노혜숙 양영관 이민상 정혜영 황지영	권오상 김원모 문충한 민순선 엄혜은 이우성 주대중	권진열 김원호 민순선 원건희 이용무 지경수	권태만 김윤진 박영룡 유철희 임 순 최상만	김관기 김관구 변혜경 유희연 정규숙 최의수
합계 : \$3,835						
한남체인 도내이션 : \$350						

공지사항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주일학교 '집자간의 길'(야외14처) 스케줄

- 시간 : 오전 10시30분 주일학교 교리공부 시간
- 장소 : 성모동산 야외14처에서 두 학년씩 진행합니다.
* 18일: 5,6학년 * 25일: 3,4학년
* 4월1일 : 유치부, 1,2학년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3월말까지

- 기간 : 지난 2월1일(수)부터 쓰기 시작한 성경을 3월31일(토)까지 계속합니다.
- 제목 : 요한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8일)

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30일(금요일 4:30pm 성당출발)~4월1일(주일)
- 장소 : 꽃동네 파정의 집(37855 Highway 79 S. Temecula)
- 대상 : 9~12학년
- 참가비 : \$80
- 준비물 : 성경, 목주, 슬리핑백, 재킷, 주일학교티셔츠, 세면도구, 미사헌금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교무주임 ☎(424)903-6637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 참가비 : \$190(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신청마감 : 3월31일까지(Deposit \$20)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행동하는 사랑학교(Love in Action School)에 초대합니다.

- 장소 : 한국 음성꽃동네 봉사체험
- 일시 : 1차 5월20~27일, 2차 10월7~14일
- 신청비 : \$300(항공료는 각자 부담)
- 참가신청 : www.loveinaction.kr

남가주소식

성골롬반 청소년선교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시 : 4월21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로열비스타 골프코스(20055 E. Colima Rd. Walnut)
- 참가비 : \$100 * 문의 : 최용훈 신부 ☎(323)388-7737

사우스메이 러닝팀 회원모집 안내

- 장소 : 토런스 사우스 하이스쿨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건강을 위해서 걷는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최현찬 안드레아 ☎(310)938-0848

소공동체 3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이태옥 아가다 213-255-6943 3/7(수)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장수영 패트릭 781-0787 3/10(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박동수 베드로 218-7340 3/17(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정남형 알베르토 791-1374 3/10(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3/19(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최경숙 수산나 320-0855 3/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형선 올리아나 634-6923 3/8(목)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이남현 막시모 213-272-3593 3/1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박정희 마리아 800-3709 3/10(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3/10(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오영섭 스테파노 891-3688 3/9(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국세찬 세바스찬 541-7644 3/8(금) 오후 7시 성당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3/10(토)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오현희 골롬바 818-6930 3/13(화) 오전 10시30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사목회

오후 1시

물 위에서 걸음마를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순례 안내인에게 “아무라 시간이 많고 노잣돈이 넉넉하다고 해도, 그분의 은총과 허락이 있어야만 순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총을 받은 자만이 떠날 수 있는 순례 여행에 어느 누가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순례지에 이르면, 마음만 경건할 뿐이지 사진 찍느라, 설명 듣느라, 관광객 북새통에 치여 지내느라 분주할 따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에 좀도둑이 많아 기도하는 중에도 한쪽 눈만 감고 기도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순례는 ‘한쪽 눈만 감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순례 여행을 다녀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진도 찍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찰과 참회를 통해 비로소 나는 성령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들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마태 14,22-33)고 하신 새벽녘에 나는 또 다른 막연한 기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으로 물 위를 밟고 걸어가다가 기센 바람에 물에 빠진 베드로 이야기는, 의심을 품지 않고 믿음에 가지면 누구든 물 위에서 걸음마라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안개에 가려졌던 갈릴리 호수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새도록 창턱에 기대어 쓰고 지웠던 파지만 죽은 생선처럼 내 꿈의 호수에 등등 떠다녔습니다.

인도의 성자 스리 라마크리슈나의 ‘물 위를 걷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피의 제자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는 자기 스승의 무한한 능력을 굳게 믿어 그의 이름을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강물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수피는 ‘나의 이름이 저렇게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분명히 엄청나게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수피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물 위를 걸어갔지만 자신의 제자와는 달리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기적은 우리 눈앞에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갈

때 그것은 우리들 곁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걸음으로 가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었기에 물 위를 걸었고, 수피의 제자는 물 위를 걷는 것을 수행의 일부로 여겼기에 기적을 행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즉, 그것은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모든 일상이 기적입니다.

◆김종철 아우구스티노 /

시인, 한국가톨릭문학인회 회장

☞ 이걸 알아두세요.

세례를 받았을 때의 가슴뛰는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그분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성당에 올 때마다 하느님께 코를 꿰인 것으로 여기셨다니, 하느님의 계명을 삶의 울무처럼 생각하셨다니, 늘 코뚜레 꿰인 소처럼 불편하고 기복하셨다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솔직히 이왕 그렇게 느꼈다면 순순히 이끄심에 맡기고 따르면 오죽이나 좋으랴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외려 그분을 ‘이라이라’ 몰아 댈 궁리를 하는 모습이 답답했다는 뜻입니다. 그분께 고분고분하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피해 갈 궁리가 엿보였다는 뜻입니다. 제발, 그분의 선하심을 이용할 생각을 접으세요. 그분의 능력을 테스트하려는 심보를 버리세요. 주님의 뜻을 살기가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핑계 댈 생각도 말끔히 털어버리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행동을 감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명은 골치 아픈 숙제가 아니며 버거운 짐이 아닙니다. 실천하고 애쓴 만큼 계산되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분께 세례받고 믿어준다는 것으로 무엇을 얻어내시려 하십니까? 하느님은 인간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없으며 인간의 지혜로 결론지을 수 없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온통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 사랑이 자매님을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도움말 : 장재봉 신부<부산교구 활천성당 주임>